



조선대병원 '리더십 안전라운딩' 실시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13일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통 중심의 '리더십 안전라운딩'을 진행했다. (사진)

1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리더십 안전라운딩은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며 개선을 위한 의견 공유 등 환자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질관리실에서 주관한 이번 안전라운딩은 김진호 병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등 병원 리더로 구성된 위원들과 실무진이 병동, 방제센터, 의료가스실 등을 돌리면서 환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안전라운딩은 △시설물에 의한 낙상 위험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등으로 평소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병하 기자



광주광산장학회, '2억8000만원 모금액' 달성

광주 광산장학회는 최근까지 2억7668만원의 장학금이 모금되는 등 연간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광산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 광산구 내 기업들이 총 1억4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특히 박선재 신미라유치원 이사장이 기탁한 1억원은 광산장학회 역사상 최고액 기부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관내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감사하다"며 "광산구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광산장학회는 현재까지 3933명의 학생들에게 총 43억5575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정성현 기자



호남대, 예산 글로벌푸드 요리대회 '동상'

호남대학교는 외식조리학과 김동규·윤지영·이진우·임하늘·정주연 학생(이상 3년)이 지난 1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2024 예산 글로벌푸드 챔피언십 상품개발 요리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주)더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주관한 이번 요리대회에서는 지역 농수산물에 이용한 요리를 선보인 우수 10팀이 선정됐으며, 각 팀은 결선에서 대상 상금 3000만원에 도전하는 라이브 작품들을 선보였다. 호남대 외식조리학과팀은 '예산 소고기와 완도 전복을 섞어 완벽한 맛을 구현한 만두' 및 '예산 사과를 이용한 깎두기'를 선보여 동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상품화될 예정이며, 일부 판매 지분은 수상자들에게 부여된다.

대회에 참가한 윤지영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력을 키워서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동강대, '효과적인 교수법 발표대회' 시상식

동강대 교수학습센터는 최근 본관 1층 총장실에서 '2024학년도 효과적인 교수법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동강대는 혁신적인 교수법으로 학생 역량을 높이는 수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교수법 발표대회를 열고 시상하고 있다. 동강대는 시상식에 앞서 지난달 21개 학과에서 추천한 교수법 가운데 본선 출품작 4개를 선정해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들은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수업 설계와 방법 등을 각각 소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는 학생들이 교수법 심사단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학생 심사단들은 "교수들이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는지 설계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수업 이해도가 한층 빨랐다. 또 학습자 관점에서 강의 효과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조선대 'CSU THE 커리큘럼 성과공유회'

조선대학교 창의교육팀은 지난 11일 학교 창의교육팀 세미나실에서 '2024학년도 CSU THE 커리큘럼 우수교과목 성과공유회'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창의교육팀은 4IR전공과목, AI전공과목, SDGs과목과 4IR 융합전공으로 구성된 CSU THE 커리큘럼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대는 관련 교과목 및 융합전공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CSU THE 커리큘럼 운영학과 확산을 위한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문적인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2024학년도 1학기에 운영된 커리큘럼 교과목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최동환 기자



광주 외국인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졸업식

광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센터 한국어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한국어교실 겨울학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

16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졸업식은 겨울학기 수료증 수여와 우수 학생 시상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내년도 한국어교실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수강생들이 학습 과정과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포토존(세줄일기)을 운영해 졸업식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도 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체류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토픽(TOPIK) 반과 일상 회화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임채영 KBC 전 대표이사, KBC홀딩스 부회장 취임

임채영(사진) 전 KBC 광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3일 KBC지주회사인 KBC홀딩스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4년간 KBC 광주방송을 이끌었던 임 부회장은 "미디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KBC 광주방송이 물리적 공간인 지역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측면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했다.

목포 출신으로 광주고와 동국대를 졸업한 임 부회장은 1992년 KBS 입사, 1994년 KBC로 자리를 옮겨 광고사업팀장, KBC플러스 신사업본부장, 콘텐츠제작부장, 편성제작국장을 거쳤다.

나다운 기자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시체육회는 16일 광주시체육회 관중회의실에서 전문체육지도자 29명을 대상으로 '2024 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시체육회 주최·주관, 광주시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부상 방지 및 재활에 필요한 스포츠 테이핑 실습 등을 교육했다.

또한 지도자 간 전문체육의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최근 스포츠과학의 경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의 일선 현장에서 전문체육 선수를 지도하며 광주체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체육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며 "지도자는 선수의 길잡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순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순천시청소년수련관과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을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로 시작한다. (포스터)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집 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6학년 40명과 중학교 1~2학년 40명 등 총 80명이다.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다만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 부담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순천시가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 체험 활동, 자기 개발 활동, 생활 관리, 특성화 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 관련 문의는 청소년수련관 (061-749-6612-4), 중등 관련 문의는 청소년문화의집 (061-749-4345, 3970)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미래를 향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 '레인보우' 김재경, 알고보니 품절녀 "올여름 결혼"

그룹 '레인보우' 출신 김재경(35·사진)이 결혼했다.

16일 소속사 나무엑터스에 따르면, 김재경은 올 여름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비연예인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배우자를 존중해 식은 비공개로 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다.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재경은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 연기자로 전향했다. 드라마 '몬스터' (2012) '배드파파' (2018) '악마판사' (2021) '어게인 마이 라이프' (2022) 등에 출연했다. 남동생은 밴드 '엔플라잉' 김재현(30)이다.

뉴스